

타이거살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평론가들의 비평과 감상을 전합니다.

걸그룹 전성시대, 르네상스의 시작일까

8월 24일,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열어본다. ‘o o님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큐레이션 된 메인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본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노래 100곡 차트의 1위부터 10위를 살핀다. 그렇다. 모두 걸그룹이다.

한국인의 68.1%가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한다고 응답한 유튜브는 어떨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톱 100 송즈(Top 100 Songs)’ 플레이리스트 톱 텐에 이름을 올린 남성 아티스트는 팝 밴드 원리퍼블릭(OneRepublic) 뿐이다. 1위부터 13위까지 여성 그룹의 노래다. 문득 ‘스트릿 우먼 파이터’ 속 허니제이의 외침이 떠오른다.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걸그룹 전성시대다. (여자)아이들의 ‘TOMBOY’, 아이브의 ‘LOVE DIVE’, 르세라핌의 ‘Fearless’가 상반기 열풍을 주도하더니 ‘광야’의 주인공 에스파, 트와이스 중 첫 솔로 데뷔한 나연, ‘Beautiful Monster’의 스테이씨, MBC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WSG워너비, 당돌한 에너지로 사랑받는 걸그룹 있지가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 결정타는 7월 22일 기습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의 신인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데뷔였다. 뉴진스는 ‘Attention’과 ‘Hype Boy’, ‘Cookie’, ‘Hurt’ 네 곡으로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새로운 문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1년 10개월의 공백을 깨고 신곡 ‘Pink Venom’을 발표하며 세계 음원 시장을 장악한 블랙핑크, 데뷔 15주년을 맞아 돌아온 케이팝의 살아있는 역사 소녀시대, 2022년의 신인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아이브까지 ‘After LIKE’로 컴백하며 그야말로 호황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는 8월 26일 열한 번째 미니 앨범 〈BETWEEN

1&2〉로 화려한 컴백을 알렸으며 그들의 동생 그룹 엔믹스 역시 9월 19일 컴백을 예고했다. ‘Pink Venom’을 공개한 블랙핑크는 두 번째 정규 앨범 〈BORN PINK〉를 9월 16일 공개한다.

케이팝 업계에는 ‘음원은 걸그룹, 음반은 보이그룹’이라는 말이 있다. 보이그룹의 노래가 대중성은 약하지만 청중층이 팬덤의 앨범 구매량은 걸그룹을 압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음원 차트에서 성과를 거두고 온 국민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주인공은 걸그룹이었지만 기획사 입장에서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는 다르다. 2020년 블랙핑크가 첫 정규 앨범 〈THE ALBUM〉으로 케이팝 걸그룹 최초의 100만 장 판매고를 기록한 이후 올해 에스파가 〈Girls〉로 걸그룹 최초의 초동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다. 아이브는 〈After LIKE〉로 초동 50만 장 판매고를 기록했다. 소녀시대, 프로미스나인, 이달의 소녀, 우주소녀, 엔믹스, 케플러, 스테이씨, 뉴진스, 있지, 르세라핌, 레드벨벳이 올해 초동 판매 10만 장 이상을 기록한 걸그룹이다.

양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질적으로도 유의미한 진화를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 걸그룹들의 노래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많았다. 카리스마 있는 퍼포먼스로 시대의 아이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블랙핑크,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판타지를 구축하는 에스파의 스토리텔링이 독특하다. 사랑을 주제로도 입체적인 해석이 가미된다. 아이브는 강한 자기에를 중심으로 ‘감히’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랑에 대해 노래한다. 소녀시대의 사랑은 오랜 시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 팬덤 ‘소원’에 바치는 헌사다. 2022년의 걸그룹 전성기가 ‘르네상스’로 역사에 기록될까. 지켜볼 일이다.

김도현 대중음악 평론가

아랑줄띠 - ㉞ 본문 ‘롤더다이스’

‘아랑줄띠’는 알아두면 좋을 곳이란 뜻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운명의 주사위



요즘 보문은 카페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모든 카페를 다 둘러본 것은 아니지만 이름만으로 낯 끌여당긴 카페가 하나 있었다. 카페 롤더다이스(Roll the dice)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흔히들 안암하면 오래된 친구같은 친숙한 분위기를 떠올리고는 한다. 그러나 롤더다이스에 들어가면 ‘안암골’과는 다른 느낌의 새로운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성수동, 망원동 같은 카페 핫플에서 느낄 수 있는 세련미 가득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분위기만으로 승부하는 카페는 아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싹터라미수와 다양한 종류의 치즈케이크가 보인다. 요즘 글루텐프리 디저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곳에서도 핫한 글루텐프리를 즐길 수 있다. 롤더다이스의 대표 디저트인 싹터라미수는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크림, 싹레이디핑거와 진한 에스프레소의 풍미가 좋은 글루텐프리 디저트다.

이곳은 디저트 맛집뿐만 아니라 음악 맛집이기도 하다. 단순하게 인기 차

트를 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카페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직접 선별해 틀어준다. 나만 알고 싶었던 가수인 ‘뎀트(Dept)’의 노래도 흘러나와서 덕분에 입도 귀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롤더다이스는 딱 두 테이블만이 있는 아주 조그마한 카페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감상하면서 느긋하게 나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개강 후 휴식이 필요할 때 카페 롤더다이스를 방문해서 운명의 주사위를 굴려보면 어떨까?

김연수 기자 lotus@

KUDiary 8월 5주차 학사일정 안내

교내 학술·문화 행사 및 각종 공지를 안내합니다.
제보: press@kunews.ac.kr

〈모집〉			
일시	모집명	내용	문의
~8월 31일	고려대학교 혁신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 공모	본교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한 연구팀 구성	02-3290-2728
~8월 31일	2022학년도 2학기 학생홍보기자 선발	2023년 2월까지 근무 가능한 학부생(재학생/휴학생), 포토샵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블로그, 페이스북 사용 가능자	커뮤니케이션팀 02-3290-1065
~9월 5일	KUSTARTUP 창업동아리 모집	고려대 세종캠퍼스 재학생	세종창업교육센터 044-860-1481
8월 29일 ~ 9월 16일	메타버스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고려대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coss_1234@naver.com

〈학사공지〉		
일시	행사명	문의
~8월 30일 16:00	2022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합격자 등록	해당 학과(부) 행정실
~8월 30일 16:00	2022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생 재학생 정규 등록	재무부
9월 1일 ~ 9월 5일 16:00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1차	재무부
9월 1일 10:00 ~ 9월 23일 17:00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기간	학사팀

고대인의 시선(詩選)

시(詩)에 대한 감상을 담아냅니다.

그때 왜

-김남기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저 사람은 나를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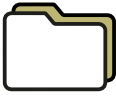
:
(중략)

‘손절’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흔히 ‘손절’은 친구, 지인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뜻의 용어로 사용된다. 요즘은 어떤 유형의 사람과 손절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영상과 글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어른들에게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계산적으로 사는 것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상처를 받으면 오랜 인연도 끊어낼 줄 아는 것도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의 강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나는 손절 당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누구도 ‘없다’고 쉽게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한 번도 남에게 상처받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는 지인들과 손절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다. 화자는 사람들에게서 가식, 미움, 교만, 물이해를 발견하고 그들과 멀어질 결심을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한다. 자신을 평가했던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않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한 명씩 결별했기 때문이다. 화자 자신이 가지고 있고, 남들 앞에서 수없이 드러냈던 결점들을 자기 눈으로 봤을 때, 화자는 결점을 가진 사람들을 ‘헤어져야 할 사람’으로 규정했다.


성찰의 계기는 고독이다. 모든 사람과 손절한 화자는 고독이라는 대가를 치른다. 화자는 ‘그때 왜’라고 자문하며 남에게 너그럽지 못했던 자신을 성찰하고, 홀로 남은 고통을 느낀다. 우리는 나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는 한다.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결별을 반복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은 삶을 살 것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 인연을 소중히 여기자. 때로는 관계에서 실망과 상처를 발견할지라도 고독 속에 자신을 몰아넣지 말자. 내 곁에 고독만이 남았을 때, 허공에 ‘그때 왜’라는 말이 맴돌지 않도록.
어세진(문과대학학21)




고대신문 인터뷰

현직 교수님이 말하는 드라마와 다른 자폐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에 대하여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이종하 교수님

고대신문 인터뷰

고대신문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